

■ 주요 국가별 만화시장 규모(2006~2015)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p	2011	2012	2013	2014	2015	2011~2015 CAGR(%)
일본	1,965	1,996	2,073	2,000	1,966	1,907	1,921	1,947	1,955	1,964	0.0
미국	695	700	683	685	635	646	651	662	671	665	0.9
독일	551	525	536	555	548	552	556	585	610	636	2.9
프랑스	478	525	515	511	510	513	515	535	551	563	1.9
영국	318	338	325	311	303	298	298	298	300	303	0.0
이탈리아	284	292	289	269	262	261	264	273	281	283	1.5
중국	172	199	210	212	218	223	229	236	241	245	2.4
호주	87	94	101	106	107	109	110	114	118	120	2.1
브라질	61	64	70	71	74	77	80	85	90	95	5.0
인도	23	26	28	29	31	33	36	39	42	44	7.2
10개국합계	4,634	4,759	4,830	4,749	4,656	4,619	4,659	4,775	4,858	4,919	3.4
전 세계	6,065	6,222	6,344	6,176	6,028	5,973	6,014	6,163	6,273	6,392	1.2

※출처: 2011 해외 콘텐츠시장조사(2011) 재구성

- 2010년 전계 만화시장 규모는 60억 2,800만 달러인 가운데 상위 10개국의 규모는 46억 5,600만 달러로 전체의 77.2%를 차지함
- 세계 만화시장은 2011~2015년까지 연평균 1.2%가 상승하여 2015년에는 63억 9,200만 달러의 시장규모가 예상됨
- 주요 국가별 만화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일본이 19억 6,600만 달러(32.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미국 6억 3,500만 달러(10.5%), 독일 5억 4,800만 달러(9.1%), 프랑스 5억 1,000만 달러(8.5%), 영국 3억 300만 달러(5.0%) 등의 순으로 나타남